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도참고자료</b>	
	배포일시	2017.11.15.(수) / 총 1매(본문1)
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이운상, 서기관 김영혜, 주무관 유문식</li> <li>• ☎ (044) 201-3214, 3215</li> </ul>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## "힘센 부처들 공무원 증원 논란" 보도 관련

- 국토교통부(장관 : 김현미)가 2018년도에 충원할 공무원 148명에는
  - 현장에서 대국민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했던 **건설현장 안전점검** (5개 지방청, 총60명), **원주-강릉 고속철 개통**(17.12월) 등에 따른 철도 치안서비스(51명, 3교대 인력), **제주공항 관제인력**(4명) 등 현장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**115명**이 포함되어 있으며, 이를 제외하면 '16년에 증원된 33명(국토부 전체정원 대비 0.8%)과 비슷한 수준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파이낸셜뉴스, 11.14.) >

◆ 힘센 부처들 '공무원 증원' 손가락 얹기

- 문재인정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을 1만여명 증원하면서 현 정부의 주요 증원 대상이 아닌 부처들까지 은근슬쩍 증원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.
- (중략) 국토부는 148명을 늘려 2016년 33명, 2017년 75명을 늘리던 수준에서 대폭 확대됐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 혁신행정담당관 김영혜 서기관(☎ 044-201-32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